

법 모른 자치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 경시한 건설사

지자체, 법 개정 사실조차 몰라 건설업체·분양회사 등 시장 교란·왜곡 방치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2년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분양과 청약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이들 지자체들이 법 개정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건설업체, 분양회사,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시장을 교란·왜곡시키는 등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처벌조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 동·서·남·북·광산 등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지난 2016년 5월 이후 건설업체로부터 신규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예비입주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예비입주자 선정) 제7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명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8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는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자치구가 점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는 2016년 5월 이후 용산지구 2개 단지 1390세대를 분양했으나 예비입주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서구는 아파

트 단지 3곳이 분양했으나 2곳밖에 통보받지 못했다. 남구는 유일하게 효천지구 3개 단지 2691세대를 분양해 3곳 모두로부터 예비입주자 명단을 받았으며, 3개 단지 781세대를 분양한 북구는 최근에서야 예비입주자 명단 통보를 건설업체에 요청했다. 광산구 역시 5개 단지에 약 3000세대의 신규아파트를 공급했으나 예비입주자 명단을 받아 보지 못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법으로 규정한 권한을 방기한 것이다. 명단을 통보받은 자치구는 명단이 제대로 선정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도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데, 그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예비입주자가 잘 선정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광주 아파트 시장의 청약시스템이 불투명하게 가동되면서 건설업체, 분양회사, 투기세력, 일부 공인중개사 등만이 아파트 관련 정보를 독점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된 아파트마저도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에 나오는 등 아파트 정보에 ‘깜깜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입법취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법을 개정해야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에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김용희기자·김한영기자 chadol@kwangju.co.kr

문병란 시집 ‘...5월 광주’ 日 독자 만난다

이달 중 한국서도 출간

독재정권에 맞서 화염병 대신 시를 던져 투쟁했던 문병란(1935~2015) 시인, 최근 문병란 시인의 시집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 독자들을 만난다.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와 일본 주요(中央)대 히로오카 모리호 교수는 최근 ‘직녀에게 : 1980년 5월 광주’(사진)를 공동번역해 일본의 후바이샤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이달 중순 ‘문병란 한·일 동시출간기념 전집’(일월서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출간될 예정이다.

김 교수와 히로오카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시집 번역을 시작한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문병란의 문학과 광주’를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출간된 일본판 시집은 ‘직녀에게’, ‘희망가’를 비롯한 문병란 주요 시선



80여 편과 80년 5월 광주에 관한 시편, 김 교수와 히로오카 교수의 평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어판 시집 발간 계기로 관련 심포지엄이 18일 오후(1시 20분) 일본 주요대학 다마캠퍼스(8201호)에서 열린다. 주요대학 정책종합문화연구소와 법학부 공동주최로 ‘시는 언어의 디자인, 사회를 개혁하는 힘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문병란 시인의 삶과 시 정신을 기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준태 시인이 ‘시는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정훈 교수가 ‘문병란 문학과 시대 의식’을 발표한다. 일어 일본 사카모토 나옴이츠 시인이 ‘미나마타-생명의 강가에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 13일 개막

내달 12일까지 목포·진도서

2017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가 오는 13일 개막한다. 세계 11개국 232명의 수목 작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수목행사다.

전남도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목포·진도 일원에서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지난 7월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한 ‘2018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의 사전행사다.

‘수목의 여명-빛은 동방으로부터’를 주제로 수목의 건강한 생명력을 과시한다. 프레비엔날레는 목포 갯바위권·유달산권·진도 윤림산방권 등 3개 권역, 8개

전시 공간에서 펼쳐진다. 총감독은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

본 전시장인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유희공간·진도 윤림산방 일원·전남도청 등에서 10개 전시와 14개 교육·체험 행사를 한다.

본 전시는 국내 작가 70명, 중국·타이완·태국·인도·프랑스·독일·호주·미국 작가 27명 등 9개국 97명이 동양 미학을 담은 전통 수목의 가치와 미래를 조형한다.

유달산 아래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오거리 문화센터, 만호동 나무숲, 전남도청에서 디지털 수목 등 작품을 전시한다. 윤림산방 내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남도화맥전’이, 금봉미술관에서는 ‘본단의 역사, 예술의 상봉전’이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

현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과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이다.

현재는 지난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9개월째 수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또 이윽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재판관 1명도 공석인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주 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 엿새를 앞둔 10일 서울시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24시인 만큼, 법원 판단은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 엿새를 앞둔 10일 서울시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24시인 만큼, 법원 판단은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 거점’ 구축 시동

전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백산산업특구인 화순을 중심으로 나주와 장흥을 잇는 생물·의약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이달 중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다.

바이오의약 전문기관, 산업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생물의약 거점 구축 방안과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화순·나주·장흥에 국립 백산

면역치료연구원 설립, 생물의약품 원료 생산기반 구축, 생물의약품 벤처·중소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백산·생물의약품은 대부분 장기치료가나 요양에 필요한 만큼 연구·생산·요양 기능까지 아우른 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2022년까지 5500억원을 투입해 생물의약산업단지, 녹십자 공장 등 전남의 인프

라를 활용한 국가 생물 의약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은 국비 등 재원 확보 여부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4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한 사업인 만큼 용역을 통해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밑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부산/대구/광주 등의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임상시험 내용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대 35일 동안 매일 1회 1정 복용한 후, 8주동안 매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1회 3정 복용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입니다.

2. 자격요건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

●기관에 방문하시어 측정된 혈압이 혈압약 복용 여부에 따른 기준을 만족한 자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250mg/dL 이하인 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임상시험 기간

약 13주~15주 (5회 방문)

4. 시험대상자 지원

시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이 주어집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임상시험 담당의사 진료비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검사비 제공 (혈액검사, 노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소정의 교통비

문의처:070-7462-7478

(상담시간: 오전 9:30~오후 6:30)